

4월 23일, '세계 책의 날'

책은 사랑을 표현하는 또 다른 아이콘, "365일이 책의 날만 같기를"



4월 23일 서울 광화문 안와 도로공원 숲 공간에서 열린 '세계 책의 날' 행사 모습.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4월 23일은 제10회 세계 책의 날

1995년 국제연합총회에서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 (정식명칭은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 올해로 열 번째를 맞았다. 세계인의 독서 증진을 위해 정한 이 날은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에서 남녀가 서로 책과 장미를 주고받는 '샹트 호르디' 축일과, 1616년 소설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와 대문호 셰익스피어가 사망한 날인 4월 23일을 기려 제정된 날이다.

현재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세계 책의 날'을 기리고 있다. 이 행사가 처음 시작된 스페인에서는 책과 장미 장터 및 페어리드를 준비하고 있고, 6년째 행사가 이어지고 있는 영국은 '북토크'를 발행해 저렴하게 책을 구입할 수 있게 한다. 런던도서관에서는 '당신의 입술을 열어주세요'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큰 소리로 책을 읽는 행사도 열린다. 부모가 취침 전 자녀들에게 20분씩 책을 읽어 주는 '잠자리 독서 캠페인'도 책의 날을 전후해 한 달간 계속된다. 한편, 독일에서는 작가들이 모여 12시간 안에 집필·인쇄를 마쳐 책 한 권을 만드는 기록에도 도전하는 이색행사도 열린다.

국내 서점에서도 '책과 장미의 축제' ... 서점으로 나온 독자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세계 책의 날'을 기리는 행사가 시작됐다. 첫 해에는 '독자와 책을 위한 만남의 자리가 부족하다'는 쓴소리가 있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다채롭고 깊이 있는 행사가 개최돼 올해에도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사)한국출판인회의(회장 김혜경, 푸른숲 대표)에서 개최하는 '책과 장미의 축제'가 대표적이다. 앞서 소개된 카탈루냐의 전통에서 비롯된 이 행사는 '세계 책의 날'이 하루 지난 24일,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비롯, 영풍문고 종로점, 서울문고 강남점, 분당 서현문고 등 전국 16개 서점에서 일제히 진행됐다. 이 날 서점을 찾은 가족, 친구, 연인들에게는 '지성'을 상징하는 책과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장미가 선착순으로 제공됐다.

교보문고 광화문점은 책의 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의 막을 올렸다.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전 국민의 독서력을 증진시키고 책 중심 국가로의 노력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한국의 출판과 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프랑크푸르트 주민국 행사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이어서 최승호 시인, 이금희 아나운서의 문학작품 낭독과 관악 5중주와 재즈 그룹의 축하 공연이 이어지고 정오부터 책과 장미 증정행사가 진행됐다.

올 들어 세 번째로 참여하는 교보문고에는 책과 장미를 받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로 혼잡을 이루었다. 독자 이선웅(31) 씨는 "보통 때도 서점에 자주 찾지만 책의 날을 기념하며 서점에 오는 기분은

또 색다르다”며 “공짜로 책을 선물받는 데다가 꽃까지 얻으니 연인에게 받은 것
 마냥 기쁘다”고 말했다.

이렇게 받은 책을 읽고 느낌을 적으면 선착순 100명에 한해 사이버 머
 니(10,000원)를 지급하는 ‘독서러레이’도 열렸다. 독서왕(총상금 300만원 상
 당의 문화상품권)을 뽑는 ‘독서 퀴즈 대왕 쟁탈전’과 야외 공원에 설치된 책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을 사연과 함께 올려 채택되면 문화상품권을 제공하는 ‘북
 포토 존 Book Photo Zone’ 행사도 열려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 문화관광부, 직원에게 책과 장미 선사

한편 ‘세계 책의 날’ 하루 전날인 22일, 이른 아침부터 문화관광부 로비
 에는 이색풍경이 벌어졌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
 회 회장이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행사를 마련한 것. 제공
 되는 책은 《숲의 생활사》(차윤정 저, 웅진닷컴), 《미운오리새끼의 출근》(매트노
 가드 저, 생각의나무)등 6종이다. 바쁜 걸음으로 들어서다 꽃을 받아든 직원들
 은 얼떨떨한 표정이었지만 이내 웃으며 책을 한 권씩 골랐다.

문화관광부는 매년 ‘세계 책의 날’을 맞아 ‘책 선물 운동’을 전개하
 고 있다. 기념일에만 행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지인들에게 책을 선물해 독서
 의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다. 또한 설문조사로 직원들에게
 필요한 책을 파악하고 해당 도서를 구입해 조직과 개인이 발전하는 데에 적극적
 으로 활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문화관광부는 법무부, 대한출판문화협회, 출
 판인회의, 문예진흥원 등과 협력해 교도소, 보호감호소 등 교정시설에 5만 여권
 을 기증하는 등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아끼지 않고 있다.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식문화산업의 근간인 출판이 국가와 사
 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원천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책 읽는 사회·문화적인 분위
 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라며 “더욱 다양한 출판문화 진흥정책을 추진할 계획”이
 라고 밝혔다. ☞

취재 홍이현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



출근하는 직원에게 책과 장미를 선물하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과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오른쪽)

미니인터뷰

(사)한국출판인회의 김혜경(푸른숲 대표) 회장

지난 2월, 홍지웅(열린책들 대표) 씨에 이어 (사)한국
 출판인회의 4기 회장으로 선출된 김혜경 씨. 출판인으
 로서 책과 사람, 사회를 잇는 다리역할은 그가 가진 오
 랜 숙원이다. 그동안 출판사 일도 병행하며 출판인회의
 집행진을 구성하는 등 바쁜 나날을 보냈지만 무엇보다
 올해 진행해 나갈 사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는 데 주력
 했다. 이번 ‘책과 장미의 축제’는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처음 맞는 큰 행사다.

“독자들에게 책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행사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자신이 직접 받아봐
 야 또 다른 사람에게 책을 선물할 수 있거든요. 경험이
 확산되는 시작점에 있기에 ‘책과 장미의 축제’는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그저 책과 장미를 무료로 나눠주는 데 그치는 행사가
 아니라 이를 통해 책과 나눔을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
 어야 한다는 말이다.

특히 이번 책의 날에는 각 서점에 모금함이 설치된다.
 서점으로부터 책과 장미를 선물받은 고객들이 적은 돈
 으로나마 마음을 표현하고, 각 서점에서는 그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책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환원한다.

“준비기간이 부족해 더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지 못
 한 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내년 책의 날 행사준비를 지
 금부터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독자들이 책과
 가까이할 수 있을지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김 회장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유인촌)에서 주최
 하는 ‘책 읽는 서울 2005’처럼 서울이라는 공간은 활
 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무궁무진하다”며 가정, 학교,
 사회가 ‘책’이라는 모토로 이어지는 현상이 지속되기
 를 바랐다.

“이를 위해서는 책 관련 행사가 말 그대로 ‘행사’라
 는 개념으로만 벌어지면 안 됩니다.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이용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해요. 현재 출판인회의는
 대한출판문화협회와 서울문화재단, 독서진흥위원회
 등과 연계한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개별적으로 진행하
 기보다는 함께 힘을 모으으로써 더 의미 있는 일을 이
 뒀내고자 합니다. ‘스며드는 독서’가 되도록 말이죠.”

